

국민 도덕 교육을 강화하는 ‘제도’로서의 ‘어머니’

- 『호토토기스』에 그려진 어머니의 인간상을 예로 -

FAN MINLI (광둥외어외무대학)

『호토토기스(不如歸)』는 도쿠토미 로카(徳富蘆花)의 출세작으로 메이지 31(189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고쿠민 신문(國民新聞)』에 연재된 신문 소설이다. 이 작품은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결핵을 앓던 주인공 나미코[浪子]가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남편 다케오 다케오[武男]에게 작별인사조차 못하고 사별한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주인공 다케오가 나미코의 무덤 앞에서 나미코의 아버지인 중장과 재회해 악수를 나누고 대만 경영을 전망하는 데서 결말을 맺는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민국가라는 관점에서 『호토토기스』(1898)에서의 ‘어머니’라는 인간상 만들기, 그리고 ‘어머니’가 맡은 역할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삼국 간섭’(1895) 후 문학자가 어떻게 문학창작을 통해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였는가 하는 점, 그리고 ‘제도’로서의 ‘어머니’의 인간상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엿보려는 것이다.

1. 삼국 간섭 이후 메이지 사회의 과제와 관민 일체적 대응

‘삼국 간섭’ 이후, 일본은 충격을 받고 서양 열강의 위협에 강한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백인 세계와 결전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전의를 고양시켰지만 전쟁에 대한 일반 국민의 태도는 메이지 정부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처럼 당시 메이지 정부는 어떻게 국민정신을 결집하고 백인에 대항하는 새로운 제국 전쟁에 대비할 것인가 하는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세에서 일본 정부는 시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문에게 등도 메이지 정부의 시책에 호응하여 관민이 일체가 되어 이에 대한 해결에 착수했다.

1.1 일본 정부의 시책

첫째, 일본은 ‘강병’에 중심을 둔 정책을 강화했다. 우선 메이지 정부는 ‘강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0년간 육해군 규모를 배가한다는 확장 계획을 세웠다. 게다가 메이지 정부는 인구 증식을 기본 국책으로 삼았다. 특히 남자는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자 확보가 특히 요망되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호소다. 일본 정부는 언론을 동원해 러시아 복수에 기여하라는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교육인들에게 ‘와신상담’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하여 ‘와신상담’의 공감을 국민에게 불러일으키고 ‘강병’에의 참여와 공헌을 강하게 촉구했다.

두 번째는, 국민정신의 결집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국민성 형성 및 국민 도덕 함양을 위하여 1890년에 제정·반포된 ‘교육칙어’에 기초하여 국민에 대한 도덕교육을 중시·강화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학적 윤리 및 가족 도덕을 강조한 <교육 칙어>는 이를 주석하는 <칙어 연의>(1891)와 함께 가족 국가관을 국민의 정신적 지주뿐만 아니라 국민 도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가족국가제도의 정비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모양처 교육을 중시하고 가족제도 및 가족국가제도에 대한 옹호를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가정·가족 관리를 포함한 가정생활 전반의 운영 및 가정 내 교육이라는 역할을 하는 어머니는 하나의 ‘제도’로서 국민정신의 결집에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1.2 시국에 순응한 문예계

메이지 정부에 의한 국민정신의 결집을 배경으로, 문예계 사람들은 시국에 편승해 국민 도덕을 주창하거나 전쟁 동원을 지지하게 되었다. 상징적인 인물은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이다. 그는 전쟁의 역할은 국민의 기백을 높이는 것이라며, 작가는 전쟁에 참여한 국민의 감정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태도는 당시 많은 문학자에게도 볼 수 있다. 그중 도쿠토미 로카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일 것이다. 삼국 간섭에 큰 자극을 받은 도쿠토미 로카는 와신상담을 주제로 “러시아를 상대로 일본은 아직도 역부족을 느낀다.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부도 늘어야 한다. 모든 것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시국에 순응하는 자세는 문예계에 확산되었다. 그 결과 이 시기 국민 도덕에 관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국민 도덕을 강화하는 메이지 정부의 정책에 호응한, 도쿠토미 로카의 손이 되는, ‘어머니’라는 인간상이 그려진 『호토토기스』가 가장 유명하다.

2. ‘제도’적 ‘잔혹’한 어머니

『호토토기스』에서 시어머니이자 어머니인 게이코는 자신의 요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혹독하게 굴어, 마치 잔인한 어머니인 것처럼 독자의 눈에 비친다. 그렇다면 게이코를 잔혹한 어머니(시어머니)로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1 가족제도를 옹호·보호하는 ‘제도’로서의 어머니

『호토토기스』는 ‘가족제도가 중요한 모티브’라는 주장이 있다. 게이코는 가족제도의 전승자로서 유학적 도덕을 함양하고 이를 스스로 실천하면서 아들 다케오와 며느리 나미코에게도 엄격히 요구한다.

게이코는 가족제도에 순응해, 남편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시부모를 섬기고 양육에 힘써 현모양처의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봉건적 가족제도에 시달리면서 어머니가 된 여성이, 이번에는 반대로 유학적 도덕, 가족제도를 가치관으로 내면화하여, 그 전승자·집행자로서 아들과 며느리를 유학적 도덕의 항목대로 성장시키려 한다.

아들 다케오에 대해서, 게이코는 무엇보다도 다케오의 출세를 바라며, 가와시마 가문의 가운을 올리고 그 존속 확보, 나아가 ‘덴노’의 은혜를 갚기를 기대한다. 한편 며느리 나미코에 대해, 게이코는 과거 제도적 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주입받아 형성된 기준으로 가정의 기능을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요구한다. 가장 잔혹한 것은, 나미코가 결핵을 앓아 건장한 아이를 낳을 생리적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와시마 가문을 위해 건장한 후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미코를 추방한 사실이다.

2.2 튼튼한 적자·적손자를 확보하는 ‘제도’로서의 어머니

근대에 들어선 이래 ‘가족’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말단 조직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가업의 번성, 집안의 전승이 지상 명제로 여겨졌다. 그런 의미에서 ‘가문’에 남자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남자아이를 원하는 풍조 속에서 집안의 전승을 확보하기 위해 어머니는 후계자로서의 적자·적손이 태어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업으로 삼는다. 『호토토기스』에서 게이코는 무엇보다도 나미코에게 적손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하지만 나미코는 결핵이 심해져 객혈을 한다. 어머니는 나미코가 손자를 낳지 못할까 걱정한다. 그래서 나미코의 요양 중에 게이코는 나미코의 친정에 절연을 요구하고 다케오와 나미코의 이혼을 강요한다. 나미코를 친정에 보내 다케오와 이혼시키는 게이코의 일련의 행

동에서, 건강한 후사를 확보하려는 '제도'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게이코의 잔혹함도 두드러진다. 다케오와 나미코는 서로 사랑하여 끊을래 끊을 수 없는 젊은 부부이다. 하지만 건강한 후사를 확보하려는 제도로서의 어머니는 두 사람의 깊은 애정을 무시하고 가차없이 현모가 될 수 없는 나미코와 다케오를 갈라놓으려 한다.

어머니의 이런 잔혹한 행동으로 인해 다케오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나미코는 다케오와 작별도 고하지 못한 채 죽음의 여정을 떠난다. 이처럼 『호토토기스』는 “집안 내실을 지배하는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저항과 패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건강한 후사를 확보하는 '제도'로서의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는 스토리이기도 하다.

2.3 가문의 운명을 국가사업에 결탁하는 '제도'로서의 어머니

남작 집안인 가와시마 가문은 쇠퇴 일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다케오는 가와시마 가문의 아들로써 일가를 일으킬 책임, 나아가 화족(華族)의 자제로서 국운의 융성에 공헌할 책임을 지고 있다. 게이코는 다케오를 몰아붙이면서, 오로지 전쟁터에 나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전쟁에서 공적을 쌓아 쇠퇴 일로를 걷고 있는 가와시마 가문을 일으킬 것을 강요한다.

나미코와의 사랑이 깨지고, 나미코를 빼앗긴 다케오는 분노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군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된다. 울분을 청일전쟁에서 전투에너지로 전환시킨 것이다. 죽을 각오로 청일전쟁에 몸을 던진 다케오는 전쟁터에서 '불의 세례'를 받고 '생존하는 힘', '남자의 힘'을 얻어, 일본 제국에 합격한 군인으로 '성장'했다.

전쟁터에서 개선한 다케오는 혁혁한 공으로 메이지 국가에 포상을 받아 대위로 승진하고 훈장과 하사금까지 받는다. 주위가 '큰댁 서방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상징하듯이 다케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가와시마 가문의 명성이 높아진 것이다. 더불어 '전쟁에서 공적'을 거둬으로써 다케오는 화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국운의 융성에 크게 '공헌'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가와시마 가문의 안녕과 일본의 국가사업과는 교묘하게 일체화되어 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다케오를 전쟁터로 몰아넣어 '부국강병'의 길을 걷게 한 어머니의 힘이 있다. 이처럼 『호토토기스』는 어머니를 가족국가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묘사하고 있다.

3. 맺으며

삼국 간섭 이후, 예상한 제국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은 유학에 기초한 국민 도덕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정신을 결집하는 긴급한 과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이지 정부는 현모양처 주의를 강화하고, 가족제도를 옹호·보호하는 제도·건강한 적남을 확보하는 제도·일가의 운명을 국가사업에 결탁하는 제도로, 가족·국가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류를 반영한 『호토토기스』에서 어머니·시아머니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게이코는 가족제도를 준수하고 스스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아들 다케오를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고 전쟁에 참여시켜 국가에 봉사하게 하는 한편 머느리 나미코에게는 현모양처가 되도록 엄격하게 교육하여 가족국가 제도를 확보하는 '제도'로서 힘을 발휘한다. 그런 의미에서 『호토토기스』는 부부애를 표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적 서사시와 호응한 이야기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호토토기스』의 행간에서, 근대 일본 문학자가 국민 도덕 강화를 강하게 호소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근대 국가 건설 추진과 침략 고취에 기여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번역책임자: 양효진)